

남북한 통합을 위한 국어 교육의 정체성 탐구*

- 사고력 신장에 기여하는 도구 교과와 성격의 정점으로 -

서 현 석 (전주교대)

< 목 차 >

- | | |
|--------------------------------|--------------------------------------|
| 1. 시작하며 | 3. 사고력 중심의 도구교과로서 국어 교육의 정체성 |
| 2. 남북한 통합을 위한 국어 교육 연구의 현황과 과제 | 4. 통일을 대비한 국어 교육이 지향하는 '사고력'의 재구성 방안 |

국문초록

‘국어’ 교과는 우리 민족의 ‘모국어 사용’을 교육의 내용으로 직접 다루며, 의무 교육으로써 국민 전체가 배우게 되는 공통 교과이다. 통일을 대비한 ‘국어’ 교육은 단지 국어 이해와 표현을 위한 기능 교과와 성격의 넘어서 우리 민족의 국어 사용에 작용하는 공통된 사회·윤리·문화적 관점으로써 올바른 언어적 선택 상황에서 작동하는 ‘국어 사고력’을 담당하는 ‘도구 교과’가 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국어 교과와 성격의 바탕으로 남한과 북한의 국어 교육의 목표에 대한 논의를 고찰하고,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온 국어 교육의 내용으로써 비판적·창의적 사고력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수용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국어사용의 관점으로써 ‘배려적 사고력’을 강조하였다. 또한 배려적 사고력을 근간으로 구체화한 ‘국어 사고력 체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 이 논문은 2016년 8월 18일 전주교육대학교에서 개최된 국어국문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1. 시작하며

통일연구원에서 가상적으로 제안한 통일 유력 시기는 2030년이다. 그 동안 우리 정부의 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단계론(1994)’으로,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의 과정을 거치는 점진적인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예멘이나 독일과 같이 예기치 않은 사태에 따른 급진적인 통일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다양한 통일의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각 상황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통합 방안이 필요하다(김진숙 외, 2016). 즉, 어떤 통일의 형태이든 통일 전 준비 과정과 통일 직후 시기에는 ‘과도기(transition period)’가 있을 것인데, 이 시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좀 더 원만한 우리 민족의 통합과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각계각층의 구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며, 그 노력의 중심에 ‘교육’의 역할이 자리할 것이다.

이 연구는 남북한 통합의 시대를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 민족의 핵심적인 공통 교과 교육으로서 국어 교육의 지향점과 그 모습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있다. 특히 국어 교육의 ‘도구 교과’의 성격 측면에서 ‘국어 교육에서 지향하는 사고력의 성격’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국어’ 교과는 우리 민족의 ‘모국어 사용’을 직접적인 교육의 내용으로 다루며, 의무교육으로써 국민 전체가 배우게 되는 공통 교과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어과 교육의 특성은 ‘국어’ 과목이 단지 국어 이해와 표현을 위한 기능 교과 of 성격을 넘어서, 우리 민족의 국어사용에 작용하는 공통된 사회·윤리·문화적 관점으로써 올바른 언어적 선택에 작용하는 ‘국어 사고력’을 다루는 교

과가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남한과 북한의 통합에 기초가 되고, 국어사용 능력에 핵심이 되는 ‘국어 사고력’을 중심으로 국어 교육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데 둔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남북 통합 혹은 민족의 통합에 관련한 교육적 논의들을 살펴보고, 국어 교육 연구 영역에서 강조해온 ‘사고’와 ‘사고력’의 개념을 고찰할 것이다. 그런 다음 국어 교육에서 전통적으로 강조해 온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에서의 사고력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수용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국어사용의 관점으로써 ‘배려적 사고력’을 중심으로 남북한 통합을 준비하는 국어 교육에서 다뤄야 할 ‘사고력’의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2. 남북한 통합을 위한 국어 교육 연구의 현황과 과제

남북한 공통 교육과정의 기초로써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교육 통합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개발의 원칙(아젠다, agenda) 2030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통일 대비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 개발의 원칙

1. 남북한의 통일은 한반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의 구성방향 중 하나이다.
2. 통일한국 교육은 미래 사회를 대비한 질 높은 교육이 되도록 한다.
3. 통일한국 교육은 특별한 요구가 있는 학생을 고려한 교육이 되도록 한다.
4.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 남한과 북한 각각에서의 교육과정은 통일을 염두에 둔 준비과정이 되도록 개선한다.
5. 통일이 발생하는 시점은 예측할 수 없는 비상 시기이므로, 이에 대비한 비상사태 및 이행조치 교육과정 운영 매뉴얼을 준비한다.
6. 남한과 북한 학생의 동질성 회복 프로그램은 통일 준비 시기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7.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은 단기, 중장기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복수의 버전(version)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8. 통일교육은 학교급별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 전반을 통해 구현되도록 한다.
9. 남북한 통합 교과는 국어, 일반사회, 지리, 도덕, 음악, 미술 등을 우선 적용 교과로 하고 점차 확산한다.
10. 21세기 남북한 학생의 요구와 흥미를 반영한 통일교육이 되도록 한다.
11. 통일이 이루어지기전부터 교사의 통일교육 소양(literacy)을 증진하도록 예비교사 양성 및 현직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 출처 : 김진숙 외(2015: 156)

<표 1>의 내용에서 통일 한국의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를 대비한 교육’이며, ‘통일을 염두에 둔 준비과정’이라는 성격을 지님을 밝히고 있다. 또한 남북한 통합 교과는 국어, 일반사회, 지리 도덕 등을 우선 적용 교과로 함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교육은 학교급별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 전반을 통해 구현되어야 하며, ‘남한과 북한 학생의 동질성 회복과 교사의 통일 소양 연수 프로그램’은 통일 준비 시기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에서 남북한 통합을 염두에 둔 국어과 교육 역시, 미래사회의 가치를 지향하는 교육의 목적을 지녀야 하며, 남북한 학생과 교사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국어 교육 내용의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남북한 통일을 준비하는 교육 연구와 관련하여 최근 김진숙 외(2016)에서는 남북한 통합교육과정의 요소들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남북한의 공통성 보존, 남북한의 차이점 극복의 세 가지를 제안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이 세 기준은 상호 독립적이지 않은데, 예컨대 남과 북의 교육과정의 공통점이 그대로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 따라 수정이 요구될 수 있으며, 또한 남과 북의 차이점 극복을 위해 둘 중 양자택일 또는 폐지가 필요할 경우 글로벌 스탠다드는 그 준거로서 활용될 수 있다.

[그림 1]에 제시된 남북한 통합교육과정의 첫 번째 기준은 미래사회를 대비한 ‘글로벌 스탠다드’이다. 이는 남북한이 통일한 이후 남한과 북한의 현재

상태의 공통분모를 넘어서서 통일국가의 경쟁력과 국격을 높이기 위한 지렛대로서 교육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글로벌 스탠다드 교육의 대표적인 예로는 ‘지속가능발전교육’과 ‘핵심역량 중심교육’을 들 수 있다.

[그림 1] 남북한 통합교육과정요소 선택기준(김진숙 외, 2016: 8-10)

기준 1	미래사회를 대비한 글로벌 스탠다드 : 미래사회 및 대비 우월한 가치기반 지속가능발전교육과 핵심역량 중심 교육
기준 2	남북한의 공통점에 기초 : 상호존중과 보존
기준 3	남북한의 차이점 극복: 차이가 있는 경우 폐지, 양자택일, 조정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이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위한 교육¹⁾을 말한다. 이 개념은 환경교육의 지엽적인 한 주제가 아니라, 우리가 터한 사회의 존속이 가능하도록 우리의 모든 교육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인간의 개인적, 집단적 모든 활동과 관계가 서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다양하고 복잡한 유기적 그물망의 관계 속에 있다는 인식 하에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시사한다(김진숙 외, 2016: 8).

또한 핵심역량 중심교육은 21세기를 대표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꼽힌다. 남북한 공히 최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창의력은 대표적인 핵심역량 중 하나이며, 남한의 2015 개정교육과정의 총론에서는 자기관리역량, 지식정보처리역량, 창의적사고역량, 심미적감성역량, 의사소통역량, 공동체역량 등 6개의 핵심역량을 제시한 바 있다. 역량 중심 교육은 2002년 발표된 OECD-DeSeCo 프로젝트 이후 미래교육의 방향 및 주요 관심 사항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핵심역량(key competencies)의 세 가지 범주로는 ‘자율적 행동, 상호

1) 세계환경발전위원회(<http://www.worldbank.org/depweb/english/sd.html>)

작용을 위한 도구 활용, 이질적 집단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들고 있다.

최근 OECD(2016)에서 제시한 '국제적 역량(global competence)'은 '배우고 일하며 빠른 변화에 살고 있는 국제적이며 문화적으로 다양한 상호 연계와 의존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 및 이해 능력(지식), 개인이 가진 지식과 이해를 다양한 맥락에서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행동, 상호작용, 의사소통, 참여하는데 활용하는 능력(기능)과 이를 지원하는 기질과 마음가짐(태도)'으로 설명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 역시 '상호 연계, 의존적인 세계, 다양한 맥락'에서 '효과적인 행동, 상호작용, 의사소통, 참여' 등을 다루고 있어, 다양한 관계 속에서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능력이 강조됨을 확인할 수 있다.

남북의 통합 역시 정치적·국가적 통일 이전에 남한과 북한의 실제적인 소통과 교류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당연히 그 소통과 교류의 과정에는 [그림 1]의 기준 2와 기준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북한의 공통점에 기초한 상호존중과 보존, 남북한의 차이점 측면에서는 선택과 조정의 과정이 요구된다. 조정의 핵심에는 남한과 북한 사회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놓이게 되며, 이를 위해 미래를 함께 살아갈 남한과 북한의 학생들을 위한 의사소통 교육은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관점에 우리의 국어 의사소통을 다루는 국어 교육은 국민 공통 교과로서 남북한 통합의 준비 과정과 통합 후에도 매우 핵심적인 교과라 볼 수 있다.²⁾

전영선(2015)에 따르면, 현재 남북의 언어는 소통과 불통 사이에 놓여 있다. 즉, '남북은 언어 소통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 남북의 언어가 소통과 불통 사이에 있고, 언어의 소통을 준비하지 않으면 통일 한국은 이중 언어정책을 써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다행스럽게 남북의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2004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국립국어원에서 북한 측과 함께 '겨

2) 이에 관련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김진숙 외, 2016:13)에서도 '통일 직후 과도기 통합 교육과정에서는 통일 후 먼저 변화되어야 할 교과를 '우선 교과'로 하여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한다.'라고 언급하며 남북 상호간의 의사소통의 도구 교과로 '국어'를 제시하고 있다.

레말큰사전³⁾ 편찬 작업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지만, 현재 2만여 명이 훌쩍 넘는 것으로 조사되는 탈북자들의 남한 적응 과정에서 의사소통 문제가 적지 않다는 연구 결과와 보고서의 내용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것으로 볼 때, 남한과 북한의 언어 이질화 현상은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 상황 속에 국어 교육 영역에서 통일을 대비한 논의들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2016년 5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통일대비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그 행사에서 강보선(2016: 40)은 ‘국어과 남북한 교육과정 비교 및 통합 교육과정 개발방향-초등학교 국어의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한 바 있다. 그 연구의 내용 중 남북한 통합의 관점에서 ‘국어’ 과목의 정체성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남한과 북한의 서로 다른 언어관에서 기인한 국어 교육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다. 즉, 남한은 국어를 사고와 의사소통의 도구, 문화 창조와 전승의 기반, 학습의 토대로 보고 있으나, 북한은 언어(국어)를 인간 교제의 수단, 지식 습득의 수단, 인간 교양의 무기로 보고 있다. 또한, 남한은 국어를 ‘사고와 의사소통의 도구, 문화 창조와 전승의 기반’ 등으로 보고 가치중립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인재의 필수적 자질’로서 ‘혁명적 세계관, 혁명적인 정서, 풍부한 어문학 소양을 분명하게 제시한다. 이 점에서, 민족의 통합을 준비하는 국어 교육의 지향점에 어떤 가치를 포함시켜야 하느냐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우선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남한과 북한의 서로 다른 각각의 국어관에 따라 국어 교과와 ‘목표’를 설정한다면 ‘국어’ 과목의 정체성에서부터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겨레말큰사전(Gyeoremal-keunsajeon, <http://www.gyeoremal.or.kr>)

<표 2> 교육과정 상에 제시된 남한과 북한의 ‘국어’ 과목의 정체성

남한(2015 국어과 교육과정)	북한(2013 소학교 국어과 교육강령)
<p>초·중·고 공통 과목인 ‘국어’는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기르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국어사용을 바탕으로 하여 국어발전과 국어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며, 가치 있는 국어 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과목이다.</p>	<p>국어 과목은 학생들에게 우리말과 글에 대한 지식과 언어실천능력을 갖추어주고 사상교양과 정서교양을 실현할 뿐 아니라 사고력을 키워주는 학과목이다.</p>

<표 2>에 비교된 내용과 같이 남한은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 사용 능력과 태도 함양, 국어발전과 국어문화 창달에 이바지, 인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하는 과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은 ‘우리 말과 글에 대한 지식과 언어 실천능력, 사상교양과 정서교양 실현, 사고력’을 키워주는 학과목임을 밝히고 있다. 요컨대 남한과 달리 북한은 국어 과목을 ‘사상 교양과 정서 교양의 실현’하는 교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남한과 북한 양측 모두 ‘우리 말과 글에 대한 지식, 기능, 사고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은 면을 보인다.

국어 과목의 정체성(성격)은 국어과 교육의 ‘목표’로 좀 더 구체화된다. 북한이 교수 목표에서 국어사용의 태도, 지식, 기능을 강조한 것은 남한과 공통적이나, 북한은 의사소통의 맥락, 품위 있고 개성 있는 국어 사용, 국어문화향유, 국어 발전,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 등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 또한 목표 차원에서 문학의 지식과 기능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교수 목적에서 학생들에게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김정일 애국주의 정신을 심어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요컨대 국어과 교육의 성격(정체성)과 목표 측면에서 북한은 주체사상이나 김정일 애국주의를 직접 거론하고 있어 남북의 국어 교육에서 큰 이념상의 차이를 드러내며, 양측 모두 국어에 대한 지식과 국어사용의 실천적 능력과 사고력 신장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국어 과목을 통하여 사상 교양과 정서 교양 실현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영역의 교육이 도덕이나 사회교과 영역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라 볼 수도 있고 실제 다루어지기도 하겠지만, 이러한 사상 아래 북한의 교과서를 통해 국어 교육을 받아 온 학생들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교육적 처방도 필요할 것이다. 다시 말해, 사상 교육 관련 부분을 ‘남북한의 차이점 극복: 차이가 있는 경우 폐지한다.’는 일반 원리에 따라 단순 삭제에 그치지 말고, 남북한의 통합의 상황에서 국어 교육이 추구해야 하는 지향점을 찾아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으로 통일 이후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상에 부응하는 국어 교수·학습 활동이 계획되어야 한다. 이때 고려해야 할 점은 ‘남한 주도’의 통일이 될지라도 기존의 ‘남한의 정치·경제 체제와 문화 사고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이다.

우리 민족의 ‘새로운 통합의 시대’를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 ‘새로운 국어 교육관, 국어 교육의 지향점’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논의의 출발점은 남북의 국어 교육에서 현저하게 드러나는 이념상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민족의 통합에 바람직한 공동의 가치 지향점을 모색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구체화 방안 중 하나는 남한과 북한 모두 국어 교육에서 국어 지식과 국어 사용의 실천적 능력과 사고력 신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통점을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3. 사고력 중심의 도구 교과로서 국어 교육의 정체성

3.1. 국어 사고력의 개념 탐구⁴⁾

4) 이 절은 제127차 한국국어교육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내용 중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정보화 시대로 불리는 현 사회에서 인간의 사고는 점점 더 중시되었고 교육학, 심리학, 언어학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사고력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사고는 매우 복잡하고 개인마다 작용되는 기능이나 요인 등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한 가지 정확한 개념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여러 선행 연구에서 논의한 바에 따르면, ‘사고’란 대체로 ‘문제 해결에 동원되는 정신 기능’으로 간주되며, 주로 인지 또는 문제해결력과 같은 지적인 작용으로 파악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명희(1987)에서는 사고란 ‘내적 의식과정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것을 그 대상의 속성이나 관계를 다루며 언어의 형태로 표현, 전개되므로 본질적으로는 언어적이거나 개념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성일제 외(1987, 1988)에서는 사고를 추론의 요소와 직관 및 창의적 요소가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는 체계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사고를 요소(element), 과정(process), 차원(dimension)의 세 가지 국면으로 구분하여 개념화하였다. 허경철 외(1989, 1990, 1991)에서는 인간의 사고를 궁극적으로 문제의 상황이나 장면에 직면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인간 고유의 지적 활동으로 정의한 바 있다. 또한 김영채(2004)에서는 ‘사고’란 학습, 기억, 언어, 이해, 의사결정과 같은 정신 활동이며, 머릿속에 있는 표상을 조작하는 활동이라고 하였으며, 이신동 외(2009: 128)에서는 인간의 사고란, 합리적으로 문제를 규정하고 거기에 대처해 나가는 유목적적이며 의도적인 정신 활동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를 통하여 살펴본 인간의 ‘사고’에 대한 정의를 한 마디로 집약한다면 ‘문제해결 과정에서 작용하는 인간의 인지적 정신작용’이라 할 수 있다.

사고력과 관련한 많은 선행 연구 내용에서 비판적 사고, 논리적 사고, 분석적 사고, 합리적 사고, 반성적 사고, 문제 해결력 등의 다양한 개념들이 혼재되어 사용되며, 각 심리적 구인 간의 관계가 명확히 정의되지는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인간의 사고와 사고력에 대한 관점은 다양한데, 이는 선명하게 규명할 수 없는 인간의 ‘마음’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 부분 포함되었다는 데 기인한다. 이와 관련하여 성일제 외(1987)에서는 고등사고력

의 하위 요소들의 관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이유를 각 사고에 대한 심리적 하위 구인들이 서로 중첩되며 관점에 따라 이들을 광의적인 혹은 협소한 범위로 다르게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신중호 외(2013)에서는 문제를 해결해 가는 체계적인 과정에 추론적, 직관적, 창의적 사고 요소 등이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⁵⁾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좀 더 선명한 사고력의 개념을 위해, 혹은 교육적 접근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사고력의 유형과 범주를 구분하려 노력해 왔다. 사고력의 개념을 좀 더 선명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사고력’에 대한 범주를 간략히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사고력의 일곱 가지 범주(김명숙 외, 2002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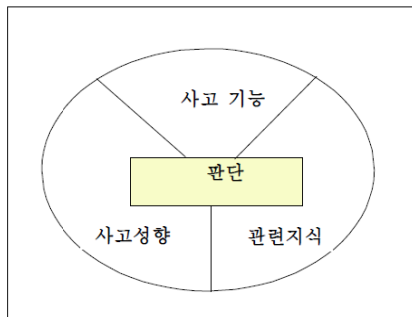
수리성 방향	← 비판적 사고 →					예술성 방향
Formal Symbolic Thinking 기호적 사고	Analytical Thinking 분석적 사고	Inferential Thinking 추론적 사고	Synthetical Thinking 종합적 사고	Alternative Thinking 대안적 사고	Divergent Thinking 발산적 사고	Material Symbolic Thinking 상징적 사고
	개념적 분석 텍스트 분석	분석적 추론:연역 종합적 추론:귀납	논리퍼즐 의사결정 민감성 전체적 조감	관점· 발상전환 대안창안 시아·시계 확장 재정의 발상전환적 문제해결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논리적 사고				창의적 사고		
광의의 논리적 사고					협의의 창의적 사고	
협의의 논리적 사고			광의의 창의적 사고			

5) 김성희(2009:14)는 우리나라의 많은 문헌 등에서 사고나 사고력의 용어에 대한 개념은 번역에서 오는 차이와 실수 그로 인한 혼동으로 개념이 제각각이며, ‘사고=사고력’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표 3>에 제시된 김명숙 외(2002a)의 연구는 ‘비판적 사고력’의 평가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교육학 영역의 연구로, 후속된 국어 사고력 관련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 사고력 검사에서 준용하게 될 비판적 사고의 개념을 ‘어떤 견해를 받아들일지 또는 어떤 행위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주어진 언어적·비언어적 자료(진술 등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행위)의 논리적 구조와 의미에 대한 파악을 토대로 개념, 증거, 준거, 방법, 맥락을 고려하여 최선의 판단을 내리고자 하는 사고(김명숙 외 2002a: 11)’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비판적 사고는 ‘수리성 방향’과 ‘예술성 방향’의 양방향의 끝 쪽을 향하는 화살표의 일직선상 중에 위치하며, 그 하위 범주에는 ‘기호적, 분석적, 추론적, 종합적, 대안적, 발산적, 상징적’ 사고력이 포함된다. 또한 그러한 사고력의 하위 범주들은 다양한 층위의 ‘논리적 사고↔창의적 사고’의 선상에서 해석될 수 있다.⁶⁾

김명숙 외(2002a)의 연구에서 특히 주목할 내용은 아래 [그림 2]와 같이 ‘비판’적 사고 과정의 요소를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비판적 사고 과정의 중핵에 ‘판단’을 두고 사고 기능, 성향, 관련지식이 관여한다는 것이다.

[그림 2] 비판적 사고 과정의 3요소 모형(김명숙 외, 2002: 14)



6) ‘논리적 사고↔창의적 사고’의 범주 구분은 지금까지 교육계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예를 들면, 국어 교육에서도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이 중시되며, 이 둘을 중심으로 일반 교육 측정 또는 평가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의 ‘판단’에는 지식과 기능뿐만 아니라 항상 개인의 ‘성향’이 관여한다. 사고력의 하위 범주를 논의할 때, 비판적 사고력과 함께 강조되어 온 ‘창의적 사고력’의 개념에서도 ‘개인의 성향’ 혹은 ‘인간성(인간의 고유성)’에 대한 중요성은 한층 더 강조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영감(靈感)없이 단순히 나타나는 창의적 산출은 상상하기 어렵다(이경화 외 역, 2006: 29). 예를 들어 고양이가 우연히 피아노 위를 걸어가다가 새로운 멜로디를 만들어 냈을 경우를 음악적 창의성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무작위로 단어를 추출하여 출력된 문학 작품이 우연히 매우 뛰어난 문학작품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문학적 창의성으로 보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의성이란 목적이나 의도와 같은 인간적 요소가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인데, 인간적 요소에는 경험, 지식, 기술에 근거한 취향이나 판단과 같은 핵심적 요인이 포함된다.

흔히 경제적 결과물이나 산출에 초점을 둔 논의에서는 창의성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인간 요인’을 소외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교육과 심리학 분야에서는 결과로서의 창의성보다는 원인으로서의 창의성, 즉 창의적 산출보다는 창의적 사람이나 창의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어, Torrance(1979)은 인간적 요소로서 기술(예 :비판적 사고, 확산적 사고, 특별한 문제해결 전략)과 능력(예: 집중력, 상상력, 문제 발견)은 물론 ‘호기심,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 인내력’과 같은 동기를 강조하였다. 또한 Albert(1990)는 의사결정, 목표설정, 자기-계발 등과 관련된 요인을 중요시하였으며, Sternberg(1988)는 창의성의 여섯 가지 측면을 제안하면서 산출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접근을 주장하였다. 그가 주장한 창의성의 여섯 가지 측면 중 교육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지식, 통찰력, 내재적 동기, 자신감 그리고 성격의 촉진적 측면(예: 융통성이나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 등 다섯 가지이다(이경화 외, 2006: 29-30).

이처럼 인간의 사고 혹은 사고력의 정의는 학자마다 매우 다양하나 대체로 사고력을 문제해결에서의 (인)지적 작용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교육이 전인적인 인간 형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또한 사고력의 인간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우려되는 면이 있다. 즉, 좀 더 역동적으로 사고력을 바라보고 다양한 차원의 사고를 신장하고 개발하는데 제한점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민족의 통합을 준비하며 국어과 교육에서 길러야 할 ‘사고력’은 학습자가 ‘국어로 이해하고 표현하며 소통하는 상호작용적 과정’에서 작동하는 사고력이다. 즉, 국어 사고력 혹은 ‘국어사용 활동’과 관련된 영역 특수적인 사고력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민족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사고력이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의사소통적 측면 즉, 인간의 마음과 정신, 그리고 대인 관계적 측면을 강조하는 ‘국어 사고력’이다.⁷⁾

3.2. 도구 교과로서 국어과 교육

오랫동안 국어 교과는 대표적인 ‘도구 교과’로 불려왔다. 이는 국어 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이 다른 교과의 학습에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명완 외(1988/1991/1994/2000)의 ‘국어과 교육론’에서는 ‘국어과 교육의 성격’의 항목에 ‘도구 교과로써 국어과 교육’을 명시하고 있다. 즉, 국어과는 학생들에게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과이며,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은 곧 다른 교과의 교과서를 읽고, 그 내용을 쓸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국어 교과는 학생들에게 다른 교과 학습에 필요한 도구를 갖추게 하는 교과라고 이해한다는 것이다.⁸⁾ 이 밖에도 여러 논저에서 ‘도구 교과로

7) 국어 사고력은 인간이 국어를 통하여 이해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사고력으로 초점화한 개념이며, 이 논문에서는 남북한 통합을 염두에 두었을 때 좀 더 확장되고 강조되어야 할 국어적 사고력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탐구하기로 한다.

8) 같은 책에서 이를 ‘국어 교과의 도구 교과적 성격을 너무 편협하게 인식한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 즉, 국어 교과의 도구적 성격을 문자 읽기나 문자 쓰기 정도로 규정하는 것은 첫째, 말하기와 듣기가 국어과에서 제외된다는 것이고, 둘째, 문자를 익힌 이후의 국어 교육의 불필요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며, 셋째, 복합적 사고 기능이 다른 교과 학습에 필요하며 이를 키우는 교과는 국어과 교육이라고 한정하는 것이다.

서의 국어과 교육'의 성격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노명완(1988/1994: 14-16) '국어교육론' : 내용에 구애받음 없이 언어로 표현된 것이면 무엇이든지 국어과 교육의 대상이 되며, 동시에 내용과는 상관없이 오직 사고 과정만을 국어과 교육의 탐구 대상으로 삼는다는 이율배반적 성격 때문에 국어과 교육은 모든 교과 교육에 우선되는 가장 중요한 도구교과로 인식됨
- 정동화 외(1989: 74) '국어과교육론' : 국어를 통하지 않고는 가르치고 배울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의사전달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음. 그래서 고래로 읽기(reading), 쓰기(writing), 셈하기(arithmetic)의 3아르(3R)을 기초교과·기본교과·도구교과라 했음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1999: 206) '국어교육학사전' : 국어 교과에서 가르고자 하는 언어 기능은 범교과적으로 모든 학습 활동에서 요구되는 지적 기능이고, 고등 사고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어 교과는 도구 교과라는 것임
- 신헌재 외(2009: 7-9), '초등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 초등학교에서 도구교과라 함은 주로 기초적 문식성(文識性: literacy) 수준의 도구성(道具性)에 근거를 둔 말임. 초등학교 중학년,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문식성의 수준은 점차 사고력 신장에 비중을 둔 것으로 높아지고, 그에 따라 국어과의 도구성도 심화·확대되어가는 경향을 보임
- 신헌재 외 (2015: 72-73), '초등국어교육학개론' : 국어과에서 가르고자 하는 국어 능력은 다른 교과 교육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임. 국어 능력은 의미 구성 능력이며, 국어과 교육은 방법 중심, 사고 중심의 교과이기에 '기초·도구 교과'로 불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어 교육의 성격을 논의한 여러 저서에서는 '도구 교과로써 국어과 교육'의 개념을 광의적 개념으로 해석하여, '문식성', '의미 구성', '국어 능력', '고등 사고 기능'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그동안 국어 교육 연구 영역에서 국어과 교육의 정체성 중 하나로 '사고(력)'과 관련된 교과로 논의되어 온 것은 자명하다. 그러한 경향은 최근 개정 고시된 2015 국어과 교육과정의 곳곳에도 잘 드러난다. 즉, '핵심역량을 함양하고 바

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국어'의 성격을 제시한 면에서 여섯 가지 국어과 핵심 역량, 즉,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자료·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자기 성찰·계발 역량'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역량의 개념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개발 연구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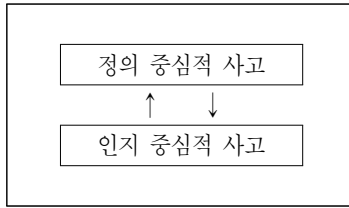
역량 기반 교육과정에서 역량의 개념은 과제 수행 상황에 얽혀 있는 복잡한 맥락적 요소들을 읽어내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식, 기능, 전략, 가치 등을 선택·활용해 가는 인지적, 반성적 성찰 능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역량 기반 교육과정의 목표는 내용 지식의 습득을 넘어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거나 구체적인 문제 해결 과정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을 동원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는 데에 있다(김창원 외 2015: 83).

밑줄 친 역량의 개념을 집약하면, 문제해결력, 즉 문제해결 과정에서 작동하는 사고력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학교 교육을 위한 역대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적어도 수년 전부터 '사고력'은 도구 교과로서 국어 교육의 핵심이요, 도달해야 할 중요한 목표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3. 국어 사고력의 종류와 하위 요소에 대한 논의

국어 교육 영역에서 '사고력'은 크게 인지 중심적 사고와 정의 중심적 사고로 양분되어 논의되었으며, 특히 인지 중심적 사고에서 비판적 사고력을 중요하게 다루어 온 것으로 보인다. 국어 교육에서 '사고력'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저서로는 이삼형 외(2000)를 꼽을 수 있다. 그 책에서 국어활동은 정의적 사고와 인지 중심적 사고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보았으며, 국어 활동에 작용하는 사고의 관계를 다음 [그림 3]과 같이 표현하였다.

[그림 3] 국어활동과 사고의 관계(이삼형 외, 2000: 49)



이삼형 외(2000)에서는 국어적 사고력을 ‘국어 텍스트를 바탕으로 다양한 생각들(정보·정서 등)을 인식, 조정, 생산(혹은 창조)하는 사고 수행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그에 따르면 확연히 구별되지는 않으나 국어적 사고 작용에는 인지 중심적 사고와 정의 중심적 사고가 있는데, 인지 중심적 사고는 설명적 텍스트와 정의 중심적 사고는 문학적 텍스트와 좀 더 밀접한 관련을 맺어 왔다. 이러한 경향은 텍스트 유형에 따라 너무나 확연하게 특징적인 사고 유형을 중심으로 교수·학습하게 하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즉, <표 4>에 제시된 내용에서 정의 중심적 사고는 주로 ‘문학’ 영역에서 학습자의 반응이나 상상력과 관련하여 ‘정서적 사고’ 측면을 의미한다.

<표 4> 국어적 사고력의 유형(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1998 : 380~382)

인지 중심적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적 사고 : 개념 파악, 분석(수렴적 사고), 기억, 재생, 내용과 구조의 이해 • 추리적 사고 : 추리(논리, 해석, 판단), 상상, 내용과 과정의 추리 • 비판적 사고 : 텍스트 내적(정확성, 적절성)판단, 외적(타당성, 효율성)판단 • 논리적 사고 : 언어 논리, 추론
정의 중심적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적 사고 : 반응, 연상, 상상, 내면화 • 심미적 사고 : 미주 판단, 오호 판단, 형상화 • 윤리적 사고 : 선악판단, 가치판단, 세계관

국어교육학적 관점에서 정의적 사고(affective thinking)는 현실적 체험과 상상적 체험을 통한 텍스트 수용과 생산에 작용하는 인간의 심리적 성향과

더불어 언어로 인간과 세계를 ‘의미 있게 의도화(박인기, 2000: 16)’하는 사고로서, 비가시성, 방향성 또는 경향성, 학습성, 관계성, 일관성 및 안정성의 특성을 지닌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4: 605). 박인기 외(2005: 46)에서는 문학교육에서 도모하는 사고력을 좀 더 구체화하여 언어적 사고력이라 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이해, 추리, 비판, 논리적 요소들을 가리켜 인지적 사고라 한다면, 정서적, 심미적, 윤리적 요소들은 정의적 사고라고 구분하였다.

주지한 바와 같이 국어교육의 논의에서 ‘사고력’을 다룸에 있어, 국어사용 활동을 ‘문제해결 과정’으로 보고 ‘그것을 어떻게 수행(해결)하는가?’ 즉, 텍스트의 이해와 표현 전략이나 방법적인 면을 강조하거나, 논리성과 합리성에 주목한 논리적·비판적 사고를 강조해 왔다. 단적인 예로,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1998)에서는 언어적 사고력의 유형으로 어휘적 능력, 사실적 사고 능력, 추리·상상적 사고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논리적 사고 능력 등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이러한 국어적 사고력의 범주와 유형 설정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국어 평가 목표 영역에도 그대로 반영되는데, 이는 언어 활동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국어 교육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다.⁹⁾ 특히 ‘내면화, 미적 판단, 선악 판단, 가치 판단, 세계관’에 대해서는 ‘문학’ 영역을 비롯한 국어과 내용 영역 전체에서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어 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아직까지도 높다.¹⁰⁾

전통적으로 사고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개념적·언어적 성격을 지녔다고 여겨졌다. 일반적으로 사고를 지칭할 때는 인지 중심적 사고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신작용은 인식 주체가 인식 대상과 하나가 되어 그 대상에 몰입하는 과정, ‘감정이입(empathy)’이 필요하며, 인식 주체의 상상적 작용이

9) 국어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과 가르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평가하는 내용이 달라야 하는지, 혹 구별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10) 이러한 현상은 국어 교과에서는 ‘내면화, 미적 판단, 선악 판단, 가치 판단, 세계관’ 등에 관련한 교육은 배제하여야 하고, ‘도덕’이나 ‘윤리’ 혹은 ‘사회’ 등의 교과에서만 다루어야 하는 내용으로 여겨왔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개입되어야 한다. 즉, 정신 작용은 주체의 상상력과 대상의 특성이 합쳐져서 발생하는 의식이다. 이때의 상상력은 주체자의 적극적인 인식 참여에 의하여 대상의 속성에 대한 지각에 근거한 상상이기에 현상적 객관성을 갖는 동시에 감정이입에서 확인되듯, 논리적이며 개념적인 성격의 사고와는 달리 정서적인 측면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의미를 생성, 조직, 표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을 이해하고, 추리·비판하며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활동들이며, 여기에 중요하게 덧붙여야 할 것은 정서적·심미적·윤리적 사고와 판단까지이다(이삼형 외, 2000: 167).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어 교육을 비롯한 모든 교과 교육에서 정서적 측면의 사고는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다. 데카르트적 전통에 의해 명료성과 명확성이 진리의 기준으로서 당연시되었고, 감정은 오류를 범하게 하는 원인으로 간주되었다. 그 후 사람의 감정은 사고를 모호하게 하고 왜곡시키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던 것이다. 국어교육학 사전(1999: 372)에서는 비판적 사고란 ‘어떤 사태에 처했을 때 감정 또는 편견에 사로잡히거나 권위에 맹종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평가·분류하는 사고’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적 사고의 하위 요소로 건전한 회의성(懷疑性), 지적 정직성(知的 正直性), 객관성(客觀性), 체계성(體系性), 철저성(徹底性) 등 다섯 가지를 든다. 이 중에서 특히 객관성은 ‘감정적이거나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려는 성향’으로 설명되는데, 이는 문제해결 과정에서 요구되는 비판적 사고력이란 감정과 주관을 배제하여야 하는 것이며, 감정이나 주관은 타당한 근거와 대립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잘 드러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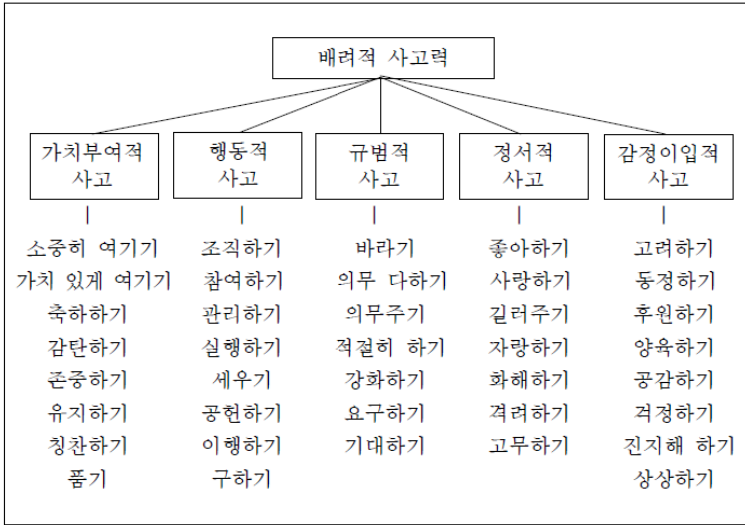
하지만 인간의 의사소통은 언어를 통해 관계 맺고 있는 상대방에게 노력을 기울여 공통된 의미에 도달하는 과정으로, 여기에는 서로의 판단과 인격이 관여하게 되며 단순히 결과로써 표현된 정확한 ‘언어적 메시지(내용)’만이 전달되지 않는다. 관계에 대한 인식과 개인의 인격적 판단, 즉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상호주관을 형성함으로써 타자와의 ‘삶’의 공유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의사소통 행위 과정에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판단,

가치 판단에 따른 행위적 노력, 끊임없는 반성적 자세와 감정 이입의 측면이 깊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는 사고를 발달시키는 스키마가 연역적 사고나 기타 엄격한 합리적 사고만으로는 풍성해질 수 없으며, 정서적 측면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관점과도 유사하다. 국어 교육을 위한 사고력 교육을 위해서는 좀 더 확장적이면서 영역 특수적인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모색하고, 그 하위 범주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어 교육 연구 영역에서 새로운 사고력의 충위를 탐구하는 연구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종률(2014)은 정의적 사고 유형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국어과 교육에서 다룰 정의적 사고의 유형을 좀 더 세분화하였다. 그에 의하면 정의적 사고의 유형에는 정서적 사고, 의지적 사고, 관계적 사고, 윤리적 사고, 형상적 사고, 심미적 사고 등이 포함된다. 최인자(2003)는 미래의 사회에 요청되는 대안적, 문화적 사고력이요, 상황을 고려할 수 있으며 유연하게 대처하는 하나의 사고 능력으로써 서사적 사고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강미영(2012)은 쓰기 활동이 ‘문제해결적 특성을 지녔다고 보고, ‘쓰기적 사고력’이라는 개념을 통합 인지적 관점에서 제안하였다. 그에 따르면, ‘쓰기적 사고력’이란, 쓰기 활동과 관련된 필자의 지적인 사고 능력을 말하며, 그 사고 능력은 ‘쓰기 지식(쓰기 내용과 방법)’과 ‘쓰기 인지 조작(기초적 사고 기능과 복합적 사고 기능)’으로 이루어진다.

서현석(2007)에서는 ‘배려적 사고’란 대안들을 찾고 관계를 발견하거나 발전시키고 차이를 판단하고 조절해 가는 데 작동하는 정신적 작용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배려적 사고 작용은 가치를 보존하고 복합적 상황에 전문적인 판단을 수행하는 것이며, 규범적 사고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성적 사고를 행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타인의 감정과 경험에 몰입하여 생각하는 감정이입이 포함된다. 김성희(2009)의 연구에서는 배려적 사고를 [그림 4]와 같이 가치 부여적, 행동적, 규범적, 정서적, 감정 이입적 사고 등 각각에 따른 하위 행동 요소로 구체화하였다.

[그림 4] 배려적 사고력의 형태와 하위요소(김성희, 2009: 21)



‘배려적 사고’는 사고의 과정과 구성 요소 중 ‘판단’과 ‘성향’이라는 개념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즉, 사고력은 지식기반, 성향, 인지적 조작력(기능)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제대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 중에 성향이란 그 자체로 직접 관찰되지는 않지만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한 반응에서 읽어낼 수 있는 잠재적인 행동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고 활동을 시작하고 지속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언어 텍스트 산출의 표현 원천에는 발신자의 심리가 작용할 수 있는데, 같은 지시 대상을 보고도 ‘날씬하다’와 ‘말랐다’와 같이 표현이 달라지는 것은 지시 대상에 대한 개인의 정서와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이러한 작용은 ‘심층적인 텍스트의 이해’ 그리고 내면화와 실천의 문제와 관련될 때, 더욱 중요해진다. 대상에 대한 중요성이나 의미에 대한 의식없이 어떤 것의 좋음이나 나쁨, 아름다움이나 추함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수 없기 때문이다.¹¹⁾

하지만 ‘배려적 사고’가 감정적 사고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표 4>에 제시된 국어적 사고력의 내용 항목에서, 인지 중심적 사고에서 속하는 추리는 어떤 자료나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텍스트에 나타나지 않은 의미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사실을 미루어 파악하는 사고 과정이며, 논리적 사고에서 추론은 추리와 달리 미리 알려진 어떤 판단에서 새로운 판단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다. 또 비판적 사고는 텍스트에 대한 내외적 판단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인지 중심적 사고’에 대한 설명만 보아도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바로 ‘판단’이다. 특히 고등 사고의 작용, 즉 어떤 대상을 인식하거나 변화를 초래하는 사고 작용에는 외적인 맥락을 고려할 뿐 아니라 자신의 내적 기준을 적용한 ‘판단’이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판단’은 해결되거나 결정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력으로서 판단’과 관련하여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탐구와 판단을 반드시 과정과 결과라는 관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모든 탐구가 판단을 만들어 내지는 않으며, 모든 판단이 탐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탐구의 결과를 가지고 탐구과정을 종합하고 평가하기가 쉽다. 그러나 ‘판단한다’는 것은 관계들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다. 그 때의 관계들은 발견된 것일 수도 있고, 발명된 것일 수도 있다. 적절한 이유 없이 주장할 수 없듯이 적절한 기준 없이는 어떤 판단도 내리기 어렵다. 이러한 개인의 적절한 기준의 적용과 판단 과정에 관여하는 사고력으로서 ‘배려적 사고’는 인지 중심적 사고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

기존의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에 배려적 사고력을 더한 다차원적 사고력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국어과보다는 도덕이나 윤리, 철학과에서 좀 더 주목받고 있다. 그렇지만 현대사회의 교육 문제 중 하나로 공동체 의식의 결여가 두드러지면서 ‘배려, 상대 고려, 공감, 협동’ 등의 개념이 국어과 교육과정 상에서도 빈번히 쓰이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국어과에서도 배려적 사고력은 충분히 다루어져야 한다(김성희, 2009).

11) 이런 의미에서 Lipman은 ‘배려적 사고’를 모든 감정적 사고들의 상징이거나 전형이라고 하였다(Lipman, Matthew, 2003; 박진환·김혜숙 옮김, 2005).

4. 통일을 대비한 국어 교육이 지향하는 ‘사고력’의 재구성

미래의 학습자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국어 능력이란, 어느 하나의 관점으로 규정짓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실제로 필요한 국어 능력을 중심으로 영역 통합을 추구하되 그 배경에 핵심역량을 두고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창의·융합적 사고력과 언어적 이해·표현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김창원 외, 2015)”고 언급하면서 국어과 교육이 지향하는 국어과 핵심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어 교육에서 논의해 온 사고력은 국어 사용의 문제 상황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능 및 태도의 종합 작용으로 개념화될 수 있으며, 그 판단의 결과는 국어 수행으로 가시화된다.

앞 장에서 남북한의 통합을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 국어 사용에 있어서 학습자에게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사고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탐구하였다. 그 결과 이 연구에서는 ‘배려적 사고력’의 개념을 중심으로 국어 사고력을 재구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물론 국어과 교육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온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은 중요하다. 또한, ‘지금까지 인류 문명사를 바꾸어 온 것은 인간의 창의성의 결과였고, 창의성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며 인간 사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조연순 외, 2008)’는 견해에 잘 드러나 듯 창의성 역시 중요하다. 하지만 국어 수행의 과정에서 사고력을 상정해 볼 때, 배려적 사고력은 좀 더 강조되어야 하며 민족의 통합을 생각하는 현시점에서 좀 더 실제적인 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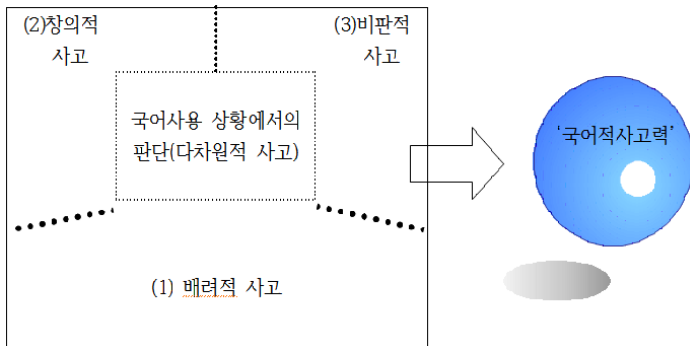
배려적 사고는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는 인간 사고의 근본 바탕이다. 특히 점점 더 다원화되어 가는 미래사회에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의 차이와 다양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효율적으로 상호적인 의사소통하느냐가 핵심적인 국어사용 능력이 될 것이다.

인간의 의사소통은 언어를 통해 관계맺고 있는 상대방에게 노력을 기울여 공동된 의미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여기에는 서로의 판단과 인격이 관여하게 되며, 단순히 결과로서의 표현된 ‘내용’만이 전달되지 않는다. 우리는 주로 말과 글로써 관계에 대한 인식과 개인의 인격적 판단, 즉 자신의 주관관 가

지고 상호주관을 형성해 가는데 그 과정에서 너와 나의 ‘삶’을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인간의 의사소통 행위 과정에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판단, 가치판단에 따른 행위적 노력, 끊임없는 반성적 자세와 감정이입의 측면이 깊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어 교육에서 학습자의 사고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연역적 사고나 합리적 판단력만을 고려해서는 아니되고 정서적 측면을 충분히 반영해야만 한다. 이것이 통일을 대비하는 국어 교육의 지향점에 ‘배려적 사고’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이질화된 국어의 통합, 서로의 삶의 차이와 관점의 다양성을 고려한 국어 사용이 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국어 능력은 ‘배려적 사고’의 기반 위에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관점에서 상대와 자신을 둘러싼 상황 맥락에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고 말을 하고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능력은 국어 사용 상황에서의 판단을 의미하는 ‘다차원적 사고’를 뜻하며 여기에는 배려적 사고가 밑바탕으로 작동되어야만 한다. 즉, ‘국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 면에서 ‘배려적 사고력’은 좀 더 구체화되어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하며, 기존에 강조되어 온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적 사고력’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간략히 시각화하면 [그림 5]와 같은데, 이는 곧 가까운 미래의 우리 민족의 통합을 준비하는 데에 밑바탕이 되는 사고력 중심의 도구 교과로서 국어 교육의 내용 체계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림 5] 남북한 통합을 대비한 국어 사고력 체계(서현석, 2016)



[그림 5]를 살펴보면, 가장 하단 중앙에 다른 두 가지 종류의 사고보다 넓은 영역에 ‘배려적 사고’가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국어 교육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학습자의 바람직한 국어사용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동시에 우리 민족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구심점이 되길 희망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는 후속 연구를 기약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2015), 『초등학교 교육과정』, 제2015-80호 [별책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의 부칙개정)
- 강보선(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통일 관련 문법 성취기준 내용 분석 및 교과서 기술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51(2), 국어교육학회, 169-192면.
- 강미영(2012), 「'쓰기적 사고력'에 관한 연구 1 -통합 인지적 관점을 기반으로」, 『새국어교육』 92, 한국국어교육학회, 101-129면.
- 김명숙(2002a), 『사고력 검사개발 연구II: 비판적 사고력 검사 제작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_____(2002b), 「공교육에서의 비판적 사고 교육의 방향과 쟁점」, 『철학연구』 58, 107-144면.
- _____(2002c), 『비판적 사고력 검사 방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KICE 연구포럼, 30-58면.
- _____(2006), 『비판적 사고성향 측정 도구의 개발 및 양호도 검증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9(1), 89-117면.
- 김영채(2002), 『사고와 문제해결 심리학』, 서울: 박영사.
- _____(2004), 『사고력 : 이론, 개발과 수업』, 서울: 교육과학사.
- _____(2007), 『교수 학습의 과정과 창의력 교육』 『사고개발』 3(2), 1-35면.
- 김영채, 전현선, 박권생(2002), 「창의적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한 수업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험 분석」, 『교육연구』 40(1), 129-158면.
- 김성희(2009), 「각색을 통한 배려적 사고력 신장 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종률(2011), 「사고력 중심의 읽기와 쓰기 통합 방법 연구 - 설득을 위한 텍스트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53, 우리말글학회, 85-110면.
- 김주환(2011), 「사회적 요구 조사를 통해 본 국어 교과의 정체성」, 고려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진숙 외(2015), 『통일대비 남북한 통합교육과정 연구(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진숙 외(2016), 『통일 대비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 세미나-총론, 국어과, 사회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O RM 2016-22.
- 김창원 외(2015),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Ⅱ 국어과 교육과정』, 연구보고 CRC2015-25-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_____(2009), 「국어 교과와 정당성과 정체성에 대한 회의」, 『초등국어교육』 40, 초등국어교육학회, 71-96면.
- 노명완·박영목·권경안(1988/1994/2000), 『국어과 교육론』, 갑을출판사.
- 노명완(1988/1994), 『국어교육론』, 한샘.
- 노명완 외(2012), 『국어교육학 개론』 제4판, 삼지원.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1999), 『국어교육학사전』, 대교출판.
- 서현석(2007), 「말하기교육의 내용으로서 배려적 사고의 개념 탐구」, 『국어교육학연구』 28, 국어교육학회, 393-421면.
- 서현석(2016), 「국어 교육을 위한 사고력의 개념과 접근 방법 고찰」, 제 127차 한국국어교육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한국국어교육학회 281-291면.
- 신헌재 외(2009), 『초등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박이정.
- 신헌재·이재승·임천택·이경화 외(2015), 『초등국어교육학개론』, 박이정.
- 이삼형 외(2000), 『국어교육학』, 소명출판.
- 전영선(2015), 『북한의 언어 : 소통과 불통 사이의 남북언어』, 경진출판.
- 조연순(2001), 「창의적·비판적 사고력과 교과 지식의 융합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으로서의 문제중심학습(PBL) 고찰」, 『초등교육연구』 14(3), 295-316면.
- 조연순·성진숙·이혜주(2008), 『창의성 교육 - 창의적 문제해결력 계발

- 과 교육 방법-』,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정동화·이현복·최현섭(1989), 『국어과교육론』, 선일문화사.
- 천경록(2011), 「각국의 자국어 정책과 국어교육; 국어과 교육과정 정책 분석」, 『국어교육연구』 2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85-217면.
- 최병연·강봉남(2010), 「문제중심학습을 통한 창의성 신장 방안」, 『창의력교육연구』 10(2), 27-44면.
- 최인자(2003), 「‘모티프’ 중심의 서사적 사고력 교육」, 『국어교육학연구』 18, 국어교육학회, 472-498면.
- 허경철(1987), 『사고(력)의 개념화, 교육의 제 문제에 대한 교육 심리학적 조명』, 한국교육개발원.
- 허경철·김홍원·조영태·임선하(1990), 『사고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IV)』,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90-17.
- 허경철·김홍원·임선하·김명숙·양미경(1991), 『사고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V)』,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91-18.
- Arthur J. Crooley(2001), *Creativity in Education and Learning*, Routledge, 이경화·최병연·박숙희 역(2006), 『창의성 계발과 교육』, 학지사.
- Lipman, Matthew(2003), *Thinking in Education*, second edition. 박진환·김혜숙 옮김(2005), 『고차적 사고력』, 인간사랑.
- Paul, R., Elder, L., & Bartell, T. (1997), *California teacher preparation for instruction in critical thinking: Research findings and policy recommendations*. The Foundation for Critical Thinking: Dillon Beach, CA.

【Abstracts】

Study on the Identit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the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 As a Basic Subject for Thinking -

Seo Hyun-suck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dentit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the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s a basic subject which cultivates a foundational language capacity for thinking. The Korean Language subject, covering Korean directly as a first language, is one of the main compulsory education subjects, which all Korean public school students have to take. To Prepare for th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the Korean Language subject needs to be a basic subject to encourage the Korean Thinking Ability(KTA), which includes and emphasizes caring thinking as well as critical and creative thinking.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a new structure model of a KTA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the future.

Key words :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the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basic subject, caring thinking,
Korean Thinking Ability(KTA)

이 논문은 2016년 10월 1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6년 11월 4일에 심사 완료
되어 2016년 11월 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